



지난해 영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짐승들'의 전도연·'내가 죽던 날'의 김혜수·'정직한 후보' 라미란·'다바' 신민아(왼쪽부터) 등 여성배우들이 "다양한 장르"에서 활약하며 한국영화 다양성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여배우 나이 다양해야 서사와 장르도 산다”

한국영화성평등센터 다양성 분석 영화속 여성 캐릭터 20대 40% 차지 2019년 이후 30대이상 주연 비중 ↑

전도연·김혜수·나문희·라미란·신민아... 한국영화 대표 여성배우들이라 할 만하다. 이들이 한국영화 다양성을 향한 변화의 주역으로 꼽혀 눈길을 끈다. 조혜영 영화평론가는 여성영화인모임이 운영하는 한국영화성평등센터 든든(든든)을 통해 5일 내놓은 칼럼에서 이들이 “오랜 경력으로 활동한 배우”로서 지난해 “남녀 주연의 연령 차이가 크게 드러나지 않는 주연 연령의 변화”를 이끌었다고 밝혔다.

●“여성 캐릭터, 남성애 중독됐다”
“지푸라기를 잡고 싶은 짐승들”의 전도연(48)과 ‘내가 죽던 날’의 김혜수(51)를

비롯해 ‘오! 문희’ 나문희(80), ‘정직한 후보’ 라미란(46), ‘다바’ 신민아(37)는 지난해 스릴러·드라마·코미디 등 다양한 장르에서 연기했다. ‘오케이미담’ 엄정화(52), ‘죽지 않는 인간들의 밤’의 이정현(41), ‘조제’ 한지민(38) 등도 합류했다. 조평론가는 칼럼에서 캐릭터와 주연 배우의 연령대를 기준으로 한국영화의 다양성을 분석했다.

이를 보면 2009~18년 매년 흥행 50위권, 모두 468편의 한국영화 중 여성 주연 캐릭터는 20대(40.1%)가 가장 많았고, 30대(31.9%)가 뒤를 이었다. 반면 남성은 30대 42.4%, 40대 32.4%였다. 이는 “여성 이 주도하는 서사는 젊음이 중요한 요소인 청춘로맨스나 성장물에 몰려 있거나, 다른 장르라도 로맨스 서사에서 남자 주연의 이성애적 대상이 되는 역할에 한정”된다는 분석이다. 남녀가 함께 이끄는 서

사에서도 “여성이 남성애 중독될 가능성”도 있다고 봤다. 이는 “캐릭터에 대한 성별 고정관념을 강화하고 결국 캐릭터와 서사의 다양성”을 해치는 경향으로 흐른다고 지적했다.

●“주연 나이의 다양성=서사·장르 다양성”
흐름은 “배우들의 경력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조 평론가는 썼다. 여성배우들은 20~30대보다 “연기 경력이 무르익고 장르영화에서 삶의 깊이나 직업적 노련함을 보여줄 수 있는 40대에는 주연 기회가 적어진다”는 것이다. 실제로 40대 여성 배우 주연작은 11.4%에 그쳤다. 하지만 남성은 40대까지 주연으로서 “경력을 연장”할 수 있다. 60대에서는 여성 비율이 낮기기도 했다. 앞으로도 동료들의 개성을 계속 전할 예정이다.

십지어 이는 “평균적 출연료의 차이”로까지 이어진다. 칼럼은 “주연으로 경력을 더 오래 지속할 수 있는 남성배우들이 여성보다 평균적으로 더 높은 출연료를 받게 된다”고 밝혔다.

10년 동안 고착화한 흐름은 2019년 이후 조금씩 변화하고 있다고 조 평론가는 봤다. 여성감독·주연작 비율이 높아지면서 ‘82년생 김지영’ ‘가장 보통의 연애’ ‘행반’ ‘갈갑스’ 등 속 여성 주연 캐릭터 나이가 30대(33.3%)와 20대(30%)로 이전과 달라졌다. 지난해에도 30대(42.9%)가 더욱 많아졌다. 30대 남성(35.7%)과 40대 남·녀 각 28.6%·25% 등 성별 “연령 차이가 크게 드러나지 않게” 됐다.

이 같은 분석을 통해 조 평론가는 “주연의 다양한 나이는 다양한 여성 서사와 장르를 가져오는 하나의 요인”이라고 결론지었다. 윤여수 기자 tadada@donga.com

연예뉴스 HOT 5

고현정 소속사, ‘박근혜 사저’ 사들여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서울 서초구 내곡동 사저를 연기자 고현정·조인성·개구무먼 이영자 등 소속사가 사들인 사실이 6일 알려졌다. 매입가는 38억6400만원이다. 이들의 소속사 아이오케이컴퍼니는 토지면적 406㎡, 지상 2층 규모의 연면적 571㎡인 박 전 대통령의 주택을 9월16일 법원 경매를 통해 낙찰 받고 이달 1일 소유권을 이전했다. 낙찰가는 최저 입찰가 31억6554만원보다 6억9846만원 높았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뇌물·직권남용 등 혐의로 올해 1월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원, 추징금 35억원을 확정 판결 받은 박 전 대통령은 벌금 납부 기한인 2월 말까지 이를 내지 않았다. 검찰은 이에 내곡동 주택을 압류해 공개 위입했다. 아이오케이컴퍼니는 2000년 고현정이 동생과 함께 설립한 연예기획사로, 쌍방울이 최대주주다.

‘갯마을 차차차’ 제작진, 관광객 방문 자제 당부



드라마 ‘갯마을 차차차’

경북 포항 일대를 배경으로 촬영 중인 tvN 토일드라마 ‘갯마을 차차차’ 현장에 관광객이 몰리자 제작진이 방문 자제를 당부했다. 6일 제작진은 공식 SNS

를 통해 “극중 혜진의 집과 두식의 집 등은 사유지를 임대해 촬영하는 곳”이라면서 “좋은 뜻으로 드라마에 힘을 보탠 주인들이 현재 거주하고 있다”고 배경을 밝혔다. 제작진은 이들이 “방문객들로 인해 일상생활에 피해를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촬영지를 방문할 때에는 가옥 출입은 자제해 달라”고 호소하며 “포항시의 배려로 청하시장의 오징어 동상과 사방기념공원 언덕 위 배 등은 유지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예능서 빛나는 ‘언니 리더십’...모니카·김연경·한예진 주목

‘스우파’ 모니카 ‘골때니’ 한예진 두각 김연경, 대표팀 동료들과 예능감 뽐내

댄서 모니카(신정우), ‘식빵언니’ 김연경, 모델 한예진이 각기 다른 리더십으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 다양한 예능프로그램을 통해 각 분야와 동료들 알리는 데 힘쓰며 시청자 관심을 받고 있다.

댄스팀 프라우드먼의 리더 모니카는 최근 엠넷 댄스경연 프로그램 ‘스트릿 우먼 파이터’(스우파)에 출연해 ‘반짝 스타’가 됐다. 스트리트 댄서가 낯선 시청자에게 이름을 알리는 처음이지만, 최근 화제성 조사회사 카 데이터코퍼레이션의 출연자 화제성 차트 5위에 이름을 올리는 등 인기를 높이고 있다.

특히 후배들의 잘못을 지적하면서도 각기 다른 스타일을 존중하는 태도가 돋보인다는 평가를 얻었다. 안무를 실수한 팀원 랍데이



모니카 김연경 한예진

에게 “내가 더 잘 할 수 있는 걸 알아서 속상하다”며 꾸짖거나 출연자들에게 “댄서의 정체성을 지키자”고 강조하는 등 리더십이 잘 드러나는 장면을 묶은 게시물이 SNS와 온라인상에서 계속 공유되고 있다.

김연경은 2020 도쿄올림픽 4위 성과를 함께 이룬 여자배구 국가대표팀 동료들이 방송 활동의 길을 여는 데 앞장서고 있다. 최근 MBC ‘나 혼자 산다’ ‘라디오스타’, SBS ‘런닝맨’ 등에 함께 출연했다. 애초 자신에게 출연 섭외가 쏟아졌지만 “함께 고생한 모두와 관심 받고 싶다”는 의지로 11명의 대표팀 동료

들과 출연 기회를 나눴다. 덕분에 ‘런닝맨’에 출연한 오지영·안혜진, ‘라디오스타’에 나선 박정아·표승주 등이 예능 감각을 자랑했다.

또 김연경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계정 ‘식빵언니’에 양효진·김수지와 토크쇼 형식으로 촬영한 영상을 올려 6일 70만 조회수를 계속 전할 예정이다.

여성 연예인들의 축구 경쟁을 그리는 SBS ‘골 때리는 그녀들’에서 모델팀 ‘FC 구척장신’을 이끈 한예진도 출신수범의 리더십으로 화제가 됐다. 이현이·차수민 등 멤버들의 장점을 확실하게 살려 팀을 4위에 안착시켰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후유증과 부상 등을 이기고 끝까지 팀을 이끌어 시청자 응원을 받았다. 끈끈한 팀워크를 쌓은 팀원들과 이달 중순부터 SBS 예능 프로그램 ‘워맨스가 필요해’에도 함께 출연한다. 윤지혜 기자 yjh0304@donga.com

K팝 가수, 다시 해외로

BTS·몬스타엑스 등 글로벌투어 재개

케이(K)팝 스타들이 다시 해외로 발길을 돌린다.

지난해 이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으로 모든 해외 활동을 잠정 중단한 케이팝 스타들이 최근 미국을 중심으로 한 대면 공연을 본격 모색 중이다. 미국 등 백신 접종률이 높은 일부 나라가 ‘단계적 일상 회복(위드 코로나·with Corona)’을 위해 방역체계 전환 정책을 펼치면서 방탄소년단, 몬스타엑스, 트와이스 등 해외 팬덤이 두터운 글로벌 그룹들이 해외 투어 등 활동을 재개하기 위한 움직임에 나섰다. 그동안 다소 위축됐던 케이팝 공연업계도 활기를 되찾을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몬스타엑스의 행보가 가장 적극적이다.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 이후 처음으로 미국 콘서트에 출연하고 월드투어도 진행한다. 6일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이들은 12월 미국 유명 라디오 방송국 아이하트라디오의 연말 콘서트 ‘2021 징글볼’ 투어에 참여한다. 12월13일 필라델피아를 시작으로 워싱턴D.C, 애틀랜타, 마이애미 등 4개 도시에서 공연한다. 군 복무 중인 서누를 뺀 5명이 무대에 오른다. 최근 영어싱글 ‘원 데이’(One Day)를 선보인 이들은 내년 1월20일 미국 뉴욕 등에 이어 2월 말까지 캐나다 투어도 펼친다.

방탄소년단도 11월27·28일과 12월1·2일 총 4회에 걸쳐 미국 LA 소피아 스타디움에서 ‘BTS 퍼미션 투 댄스 온 스테이지-LA’(BTS PERMISSION TO DANCE ON STAGE E-LA)를 연다. 오프라인 공연은 2019년 10월 말 서울 잠실올림픽주경기장에서 펼친 ‘러브 유어셀프:스피크 유어셀프’ 월드투어 파이널 무대 이후 2년 만이다.

트와이스는 최근 첫 영어 싱글 ‘더 펄스’(The Feels) 뮤직비디오 말미에 등장한 스케줄 포스터를 통해 투어 일정을 깜짝 발표했다. 올해 데뷔 6주년을 맞아 다음 달 정규 4집을 발표하고 네 번째 월드투어를 진행한다. 안영우 기자 annjoy@donga.com

삼양라면·오잠 “오징어게임 열풍, 이때가 기회야” 매출 증가 효과...일부 국가 품질검사 강화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오징어게임’ 속 소품이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고가에 팔려나가는 등 세계적 화제를 끌고오고 있다. 극중 등장한 라면에도 관심이 쏠리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웃지 못할’ 상황도 벌어지고 있다.

‘오징어게임’ 속 라면은 삼양식품의 삼양라면으로, 이정재와 오영수가 끓이지 않은 라면을 소주 안주 삼아 대화하는 장면에 등장한다. 제품이 국내외 회자되자 삼양식품은 관련 프로모션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영화 ‘기생충’ 속 짜파구리를 수출한 성과를 거둔 농심도 ‘오징어게임’ 포스터를 패러디해 오징어짬뽕을 홍보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두 회사는 최근 해외 매출이 늘어났다고 밝혔다. 농심은 대표 제품 신라면의 해외 매출 규모가 올해 3분기 전체



‘오징어게임’ 속 삼양라면이 나오는 장면

(6900억원)의 53.6%(3700억원)를 차지했다고 발표했다. 삼양식품의 불닭볶음면도 지난해 3000억원의 수출액으로 전체 57%의 비중이었다.

그를 방탄소년단 등 세계적 팬덤을 구축한 스타들의 활약, 짜파구리를 전파한 영화 ‘기생충’의 효과 등 한류 콘텐츠가 힘을 보탤 것이라는 분석이다. ‘오징어게임’의 삼양라면과 관련한 기대감이 커지는 배경이기도 하다.

이런 상황에서 멕시코 연방소비자보호청은 5일 33개 인스턴트면 제품에 대한 품질 조사 결과를 내고 삼양식품의 치즈불닭볶음면과 신라면(컵라면) 등 일부 한국 라면 등을 회수 조치했다. 치즈 불닭볶음면의 경우 ‘때운 치즈맛 닭고기 라면’이라면서 “실제 표기 성분상엔 ‘가공 닭고기맛 분말’과 ‘가공 닭고기맛’만 들어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이에 현지인들은 ‘오징어게임’ 속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인형을 활용한 패러디로 대응하고 있다. 6일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조성민 멕시코시티 통신원에 따르면 이들은 SNS에서 현지 최고 인기인 일본라면을 언급하며 “움직이지 말라”고 패러디하고 있다.

이러한 ‘오징어게임’의 전 세계적 열기를 드러내는 한 대목으로 받아들여진다. 윤여수 기자